

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양서류 · 파충류

개구리와 도롱뇽 등 대부분의 양서류는 물가에서 태어나 습한 숲에서 성장하고 산란을 위해 다시 물가로 돌아온다. 기쿠치 계곡처럼 두 환경이 공존하는 장소는 양서류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이며, 양서류를 먹이로 삼는 파충류도 모여든다.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양서류 · 파충류를 소개한다.

지쿠시부치 도롱뇽(*Hynobius oyamai*)은 계곡 삼림의 지표면이나 맑게 흐르는 물에 서식한다. 낮에는 바위 그늘에 숨어 있고, 밤에만 나와서 먹이인 쥐며느리 등의 곤충을 찾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다. 성체는 몸길이 11~15 센티미터이고 청회색을 띠고 있다. 4월부터 5월에 걸쳐 물속의 바위 그늘에 알을 낳는데, 유생이 여름에 작은 시냇물이나 웅덩이에서 헤엄쳐 수생 곤충을 잡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. 가을에는 숲으로 이동하며 식성도 변화한다. 규슈 북동부에만 서식한다고 한다.

기쿠치 계곡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구리는 흑갈색의 **다고 개구리**(*Rana tagoi*)다. 몸길이 5 센티미터 정도로서 강변의 연못이나 웅덩이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다. 진주 같은 흰색의 올챙이가 알 속의 영양분만을 먹고 성장하는데, 완전한 암흑을 필요로 하므로 다고 개구리는 지하에서 흐르는 물에 산란한다. 올챙이는 물에서 나오기 전에 성장하면서 서서히 색소가 발달한다. 몸길이가 18 센티미터까지 자라는, 일본에서 가장 큰 개구리인 **서일본두꺼비**(*Bufo japonicus*)도 자주 보이는데 계곡 산책로의 웅덩이에서 검은 올챙이를 볼 수 있다. 한편으로 **기생개구리**(*Buergeria buergeri*)라고 하는, 높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특징적인 개구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. 기생개구리의 울음소리는 4월부터 7 월의 번식기에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로서 일본 고유의 시가인 하이쿠에서도 초여름을 나타내는 말로써 사용된다.

낙엽이 퇴적된 습한 삼림 지표면에는 **일본얼룩배영원**(*Cynops pyrrhogaster*)과 **다카치호뱀**(*Achalinus spinalis*)이 서식하고 있다. 일본얼룩배영원은 도마뱀과 비슷한 작은 영원(도롱뇽의 일종)으로서 배에 빨간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다. 강 가까이의 웅덩이에서 느긋하게 지내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. 무늬는 개체에 따라 다르며 영원의 수명인 최대 25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. 빨간색은 독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색이지만, 이 영원의 독은 보통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다. 한편 길은 회색의 다카치호뱀은 독을 갖고 있지 않으며,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좋아하여 주로 밤에 좋아하는 먹이인 지렁이를 찾아 돌아다닌다.